

미원주민선교주일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본 헌금 전 이야기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미원주민선교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누가복음 24:36b-48 및 데살로니가전서 1:2-3을 기초로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라는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꾸러미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래리 젠트 목사는 체로키족 출신으로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의 그레이스하트우드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버지니아연회 미원주민 사역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원주민은 1492년에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터틀 아일랜드(북미)가 미국이라고 불리기 전부터 미국 문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On 오늘 미원주민선교주일에 우리는 교단에 속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감리교회의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하는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미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들이 미원주민 문화 전통을 기리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합니다. 헌금의 절반은 우리 연회와 지역의 사역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의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합니다.

나바호족인 캘빈 힐(Calvin Hill) 목사는 몬태나주 브라우닝의 있는 블랙피트연합감리교구 담임 목사입니다. 힐 목사는 미원주민 언어와 문화의 상실을 슬퍼하면서도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에 대

한 소명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 중 하나는 방문 선교팀에게 미원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힐 목사의 아낌없는 선물이며 원주민들이 연합감리교회의 다양한 유산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관점을 갖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 사역들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힘을 얻어 함께 일합니다.

헌금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가 미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헌신의 상징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원주민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선언으로 바꾸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